

다니엘서 11장¹⁾ 다리오가 벌집을 건드리다

다리오가 진리의 책을 받다

이 장은 별도의 장이나 책이 결코 아닌데, 그 이유는 10장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될 세 왕 (고레스, 캄비세스, 그리고 스메르디스)이 있을 것이고, 넷째 (다리오)가 그리스인들과의 분쟁을 선동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진리의 책은 그리스 국가의 발생을 말해주는데, 그 첫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고, 북방 (시리아)에서 온 한 왕과 남방 (이집트)에서 온 한 왕이 있게 될 것이다. 일어날 사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단 11:1-4)

11장의 서두에서 단 10:18에 나오던 천사는 메대 인 다리오가 바빌론을 통치하기 시작할 바로 그때부터 그를 도와 굳게 하고 강하게 하겠다고 전언한다. 단 11:1의 천사가 서있었다는 진술은 아마도 단 10:13과 같이 적과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sensu bellio s. military*) 는 것으로 사용된다. 그의 입장은 보통 메대 인 다리오를 지원하여, 그를 굳게 하고 강하게 한다는 것으로 본다.

천사는 그리스 국가와 관계가 있다. 먼저 그리스를 부추겨 싸우게 만든 페르시아 왕은 넷째인 휘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리오였다. 그의 통치 후에 페르시아 왕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패배시키기까지 점점 약화되었다. 페르시아의 제1차 그리스 원정은 주전 492년, 다리오 제 30년에 있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영주들이 지불한 조공을 통해 다리오가 얻은 부를 기록하는데, 다리오가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휘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리우스는 왕이 되었다. 이사야의 모든 민족이 처음에는 고레스에게 다음에는 캄비세스에게 정복되어 그의 신하가 되었다. 하지만 아라비아인들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다리우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었는데, 페르시아인들은 그것을 사트라페이아라고 부른다. 그는 행정구역을 정한 다음, 그곳에 태수를 임명하고 민족 별로 자기에게 세금을 바치게 했다.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이웃에 사는 민족들을 한 단위로 묶었고, 외곽의 부족들은 필요에 따라 이 민족 또는 저 민족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러 행정구역에서 해마다 바치는 조공이 어느 정도였는지 언급하기 전에 먼저 말해두어야 할 것은 은으로 바치는 자들은 바빌론 달란트를 무게 단위로 사용하고, 금으로 바치는 자들은 에우보이아 달란트를 무게 단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바빌론 달란트의 무게는 78 에우보이아 므나 (Euboic minae)에 해당한다. 고레스와 캄비세스의 치세 때는 정해진 세액 같은 것은 없었고, 여러 민족들이 선물을 바쳤을 뿐이다. 이러한 세액 산정과 그의 유사한 조치들 때문에 페르시아인들 사이에서는, 다리우스는 장사꾼이고 캄비세스는 폭군이며 고레스는 아버지란 말이 있는데, 다리우스는 모든 것에 값을 매기고 캄비세스는 가혹하고

1) 유진 폴스티히, [다니엘서와 역사의 조화], 성경과학연구소 2020, 11장 pp115-136 참고

교만하며 고레스는 인자하여 좋은 것은 모두 그의 덕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세 목적을 위해 하나의 단위로 간주된 이오나인들, 이사야의 마그네시아인들, 아이 올리스인들, 카리아인들, 루키아인들, 밀뤼아스인들, 팜필리아인들로부터는 은 400 달란트가 들어왔다. 이것이 정세를 위한 제 1구역이었다. 루시아인들, 튀리아인들, 리소니오이족, 카빌리오이족, 휘텐네이스족으로부터는 500 달란트가 들어왔다. 이것이 제 2구역이었다. 배를 타고 들어올 경우 헬레스폰토스 해협의 우안에 거주하는 자들, 곧 프리기아인들, 아시아의 트라케인들, 파폴라고니아인들, 마리안뒤노이족, 쉬리아인들로부터는 360 달란트의 세수가 들어왔다. 이것이 제 3구역이었다. 킬리키아인들로부터는 연중 매일 한 필씩 360필의 백마와 은 500 달란트가 왔다. 그 중 140 달란트는 킬리키아 지방을 지키는 기병대의 유지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360 달란트는 다리우스에게 갔다. 이것이 제 4구역이었다.

암피아라오스의 아들 암필로코스가 세운 포시데이온시에서 아이컵토스에 이르는 지역은 (물론 과세 대상이 아닌 아라비아인들의 나라는 제외하고) 350 달란트의 세금을 내야했다. 이 정세 구역에는 포이니케 전역과 팔라이스네티의 시리아와 키프로스가 포함된다. 이것이 제 5구역이었다.

아이컵토스, 아이컵토스 징세 구역에 포함되는 인접한 리비아 지방, 퀴헤네, 바르케부터는 700 달란트가 징수되었다. 여기에는 모이리스 호의 고기잡이에서 들어오는 세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돈과 할당된 곡식을 제외하고 700 달란트가 들어왔던 것이다. 곡식에 관해 말하자면, 멤피스의 '하얀 성체'에 주둔한 페르시아 인들과 용병들에게 120,000 메딤노스가 추가로 공여되었다. 이것이 제 6구역이었다. 샷타쿠다이족, 간다리오이족, 다디카이족, 아파뤼타이족은 공동으로 170 달란트를 바쳤다. 이것이 제 7구역이었다. 수사 및 킷시아땅의 나머지에서 300 달란트가 들어왔다. 이것이 제 8구역이었다.

바빌론 및 나머지 아시리아지방으로부터는 은 1,000 달란트와 500명의 내시 소년들이 들어왔다. 이것이 제 9구역이었다. 악바타나, 나머지 메디아땅, 파리카니오이족, 오르트코뤼반티오이족으로부터는 450 달란트가 들어왔다. 이것이 제 10구역이었다. 카스피오이족, 파우시카이족, 판티마토이족, 다레이타이족은 공동으로 200 달란트를 바쳤다. 이것이 제 11구역이었다. 박프라아에서 아이글로이족의 나라에 이르는 지역으로부터는 350 달란트의 세금이 징수되었다. 이것이 제 12구역이었다.

팍튀이케와 아르메니아와 그 인접 지방에서 흑해에 이르는 지역으로부터는 400 달란트가 들어왔다. 이것이 제 13구역이었다. 사가르티오이족, 사랑가이족, 타마나이오이족, 우티오이족, 위코이족, 페르시아 왕이 이른바 유랑민들을 정착시킨 홍해의 섬들에 있는 자들, 이들 모두로부터는 600달란트의 세금이 들어왔다. 이것이 제 14구역이었다. 사카이족과 카스피오이족은 250 달란트를 바쳤다. 이것이 제 15구역이었다. 파르티아인들, 코라스미오이족, 속도이족, 아레이오이족은 300 달란트를 바쳤다. 이것이 제 16구역이었다.

파라카나오이족과 아시아의 아이티오피아인들은 400 달란트를 바쳤다. 이것이 제 17구역이었다. 마티아노이족, 사스페이레스족, 알라로디오이족에게는 200 달란트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것이 제 18구역이었다. 모스코이족, 티바레노이족, 마크로네스족, 뭇쉬노이코이족, 마레스족에게는 300 달란트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것이 제 19구역이었다. 인디아인들은 내가 아는 한 가장 인구가 많은 민족으로, 어느 민족보다 더 많은 360 달란트의 사금을 세금으로 바쳤다. 이것이 제 20구역이었다.

여기서 언급된 바빌론 달란트로 납부된 은을 에우보이아 달란트로 환산하면 9,880 에우보이아 달란트가 된다. 그리고 금의 가치를 은의 13배로 치면 인디아의 사금은 4,680에우보이아 달란트가 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다레이오스의 세수는 매년 14,560에우보이아 달란트에 이르렀다. 여기서 나는 10 달란트 이하의 단위는 무시해버렸다.

이상이 다리우스의 아시아와 리비아의 극히 일부에서 거두어 들이던 세수였다. 그러나 후일에는 여러 섬들과, 데살리아에 이르는 에우로페의 주민들로부터도 세금이 징수되었다. 이들 세수를 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관했다. 왕은 세금으로 들어온 것을 녹여 토기들에 붓고 토기가 가득 차면 바깥의 토기를 제거한다.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덩어리에서 필요한 만큼 잘라 썼다.

행정구역들과 조세 부과에 관해서는 이쯤 해두자. 나는 납세의 의무를 지는 민족에 페르시아인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였기에 조세를 면제받았다. 또한 세금이 아니라 선물을 바치도록 요구 받은 민족들도 더러 있다. 아이컵토스와 경계를 맞대고 사는 에티오피아인들과- 이들은 캄비세스가 징수하는 에티오피아인들을 공격하러 갈

때 정복했던 것이다- 신성한 니사 (Nysa) 산 주변에 살며 디오니소스를 위해 축제를 개최하는 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에티오피아인들과 그들의 이웃 부족들은 인디아의 칼란티아족과 같은 씨앗을 사용한다. 그들은 또 지하에 거주한다. 이들 두 민족은 한 해 걸러 한 번씩 정제되지 않은 금 2코이닉스, 흑단(黑檀) 통나무 200개, 에티오피아 소년 다섯 명, 대짜 상아 20개를 바치는데, 그런 관행은 지금까지도 존속되고 있다. 그밖에 코커스인들과 콜키스와 카우카소스 산 사이에 사는 여러 부족들도 (페르시아제국의 영향력은 거기까지 미쳤고, 카우카소스 산 너머에서는 아무도 페르시아인들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진하여 세금을 거두어 지금도 4년에 한 번씩 바치는데, 그들이 바치는 세금은 소년 100명과 소녀 100명이었다. 끝으로 아라비아인들은 해마다 1,000 달란트의 유향을 바쳤다. 이상이 이들 민족들이 세수와는 별도로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었다. (헤로도토스 III.89-97)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3세를 사로잡았고, 잠시 다스렸다가 자격을 가진 상속자 없이 죽었다. 그러므로 그의 장군들이 그의 제국을 놓고 서로 싸웠다. 결국에는 그의 장군들 사이에 네 조각으로 분리되었다. 다니엘 7장의 네 머리달린 표범은 역시 이것을 가리킨다.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은 그의 네 장군들의 손에 떨어지고 난 후, 알렉산더 시대에 가졌던 영광과 권세를 보존하지 못했다. 그 특징이 되었던 강한 중앙 집권은 알렉산더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다니엘의 예언의 이 사건은 알렉산더가 주전 323년 음주로 죽었을 때 성취되었다. 앞서 단 8:8에서 지적한 대로, 알렉산더는 조기 사망했다. 4절의 '그가 일어서게 될 때' 라는 표현은 '그가 강하게 성장하고 있던 동안에', 즉 아직 권력을 잡아가고 있는 동안으로 번역할 수 있겠다. 보다 평범한 또 다른 히브리어 표현은 '그가 일어서게 되자마자' 인데, 알렉산더의 통치의 짧은 기간을 가리키고 있다. 일어섰다는 말은 앞절들에서처럼 동일한 군사적인 별도 의미를 가진다.

알렉산더의 왕국은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바르시나를 모친으로 두었던 그의 아들인 헤르쿨레스는 포리스페르콘에 의해 살해되었다. 록사나에게서 유복자로 태어났던 어린 알렉산더는 주전 310년에 살해되었다.

"그 나라가 뿔뿔히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는 표현은 그 왕국의 분리를 암시하고, 독자들을 진리의 성서로 그 다음 단락, 곧 프톨레미 왕조(남방의 왕)와 셀류시드 왕조(북방의 왕)로 인도한다.

알렉산더의 두 아들들은 그 부친이 죽은 지 13년 후에 모두 살해되었다. 그 자신의 후손들은 그의 방대한 왕국을 계승하지 못했다. 알렉산더의 네 장군들이 그 제국을 네 개의 지리적 지역으로 분리하고, 각각 한 지역을 다스렸다. 분리는 대략 이와 같았는데, 1) 카산더는 마케도니아를 취하였고, 2)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를 취하였으며, 3) 셀류쿠스 니카토르는 시리아를 취하였고, 4)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취했다. 네 가문들 모두 결과적으로 로마인들이 동으로 진군했을 때 그들의 왕국을 잃었다. 프톨레미 왕가는 마지막으로 주전 32년에 그들의 왕국을 잃었다. 자기 뜻대로 행하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속했던 권력과 특권은 분리된 제국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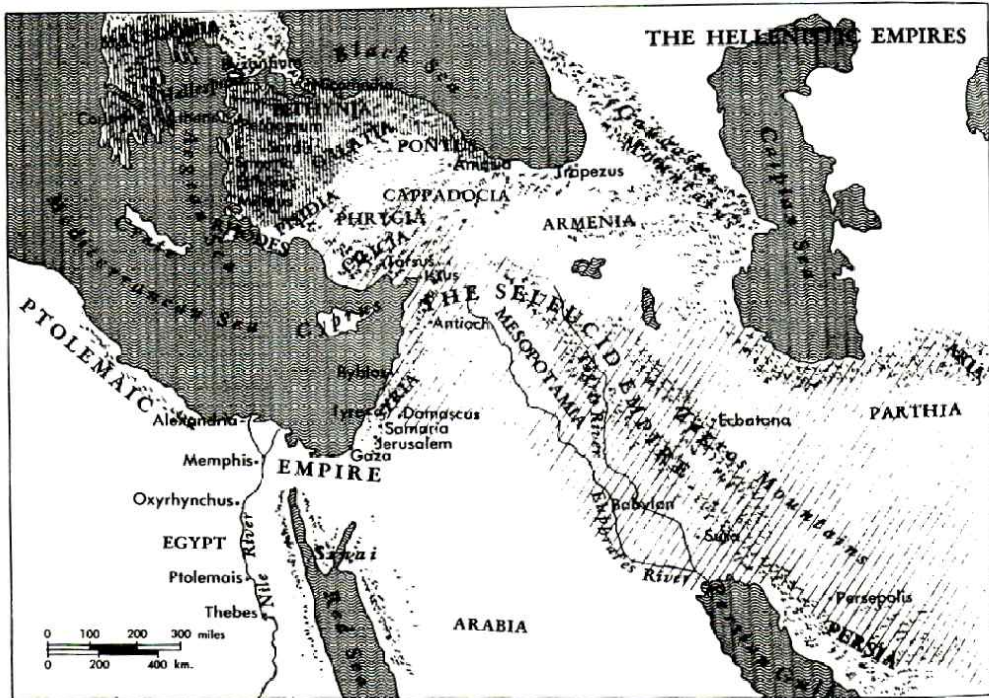
네 작은 별 중의 하나인 셀류쿠스 1세

그 시기의 은화에서 재생된 프톨레미 1세. 알렉산더의 장군들 중의 하나로 그의 명령 하에 있던 이집트를 왕국으로 변형시켜서, 파라오의 계승자가 되었다.



네 작은 별 중의 하나인 프톨레미 1세

이 탁월하게 미리 기록된 역사의 다음 단락에서 관심의 초점은 두 왕국 (이집트와 시리아)에 있다. 이 두 왕국, 곧 북방의 시리아와 남방의 이집트가 유대의 운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단 11:5은 남방 곧 이집트의 여러 왕들과 북방 곧 시리아의 여러 왕들 사이의 투쟁을 이렇게 예고하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때 (주전 175년-주전 164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대략 150년의 시기이다. 남방의 왕은 이집트의 왕으로 확인되고 (단 11:8), 70인역은 남방을 이 단락에서 줄곧 '이집트'로 번역한다. 시리아의 이름은 인용되지 않는데, 다니엘이 기록하던 때에는 그러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한 언급은 혼동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 예언은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의 투쟁을 선별적으로 더듬어가고, 모든 지배자들이 거명되지는 않지만, 보통 그 신원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단 11:5). 이 예언에서 방향은 팔레스타인을 땅의 중심으로 계산된다. 남방의 왕은 프톨레미 1세 소테르 (주전 305년-주전 284년)를 가리킨다. 그는 알렉산더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능한 장군들 중의 하나로, 그의 군주의 죽음 후에 총독이 되었다가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

프톨레미 1세 소테르는 아주 강력하게 성장했으나, 그의 아들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가 더욱 강력하게 성장했는데,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단 11:5). 프톨레미 2세의 치하에서 거대한 도서관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수집되었는데, 그가 지배하던 여러 나라에 그들의 책을 그리스 언어로 복사하도록 명령했다. 프톨레미의 때에 히브리 성경이 72인의 유대 학자들에 의해 그리스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본을 70인역(Septuagint)라고 불렀다. 이 번역은 아직도 그리스인들에 의해 사용된다.

그래서 주전 321년 이집트를 침공한 프톨레미 1세의 힘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안식일에 전격적으로 이동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도시를 저항 없이 취했다. 요세푸스는 프톨레미 1세에 의한 예루살렘의 점령을 이야기한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을 사로잡았는데, 그 목표를 위해 기만과 배신을 이용했는바, 그가 마치 제사를 드릴 것처럼 안식일에 그 도시에 들어오면서 어려움 없이 도시를 얻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가 적이라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가 이렇게 얻었는데, 그들이 그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까닭이고, 그 날에 안식하고 조용히 지냈던 까닭이며, 그는 그 것을 얻고 나자, 잔인한 방식으로 군림했다. (Antiquities XII. i.1)

70인역의 번역 이해를 위한 일차 자료인 아리스테아스의 서신 (The Letter of Aristeas)은 또한 그 왕의 유대인 정복을 전해준다.

그는 코엘레-시리아 전역을 침공해서, 성공하는 한편 용기를 내서 잡아간 사람들도 있고 죄수로 사로잡기로 했는데, 모두를 공포로 복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십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유대인의 땅에서 이집트로 이송시켰고, 그들을 위해 삼천 명을 택하여 무장시키고 그들을 그 땅 도처의 요새에 정착시켰다.

그렇지만 주전 316년에 프톨레미의 경쟁자인 안티고누스에게 빼앗겼다가, 가자 전투(주전 312년) 후에 프톨레미 1세가 반환시켰다. 프톨레미와 협력했던 셀류쿠스 1세 니카토르는 스스로 바빌론의 군주가 되었다.

주전 312년은 유대인들 사이에 오래 사용되던 달력이 개시되는 셀류시드 제국의 시작을 표시하는데, 사실 아직도 동방의 일부에서 채택하는 유대인들이 있다. 주전 301년 앞수스 (Ipsus)의 전투에서 안티고누스가 죽자, 이것이 프톨레미 1세에게 팔레스타인 북부를 점령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셀류쿠스(주전 305년-주전 280년)가 승리를 거두고 그의 수도인 안디옥에서 시리아를 지배했다.

이집트의 비문들과 파피루스가 보여주는 대로, 유대인들은 프톨레미의 이집트에서 다수가 발견되곤 했다. 많은 유대인들이 프톨레미가 지배하기 이전에 이집트에 있었고, 프톨레미 라구스(소테르)에 의해 이집트로 많이 옮겨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인들 아래서 가졌던 동일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고 평화롭게 살면서 그들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전통들을 고수하도록 허락받았다. 프톨레미 왕가가 지배하는 동안 이집트는 헬레니즘 세계의 가장 중요한 지적 중심의 하나가 되었다. 토착민들을 헬라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

프톨레미 왕조의 창설자인 프톨레미 1세는 박물관과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건축하는 책임을 졌다 지식의 수호자로서 그의 명성은 고대 세계에 두루 퍼졌다. 알렉산드리아의 이집트는 학자들의 본거지와 지식의 큰 중심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한 때 적어도 14000명의 학생들이 알렉산드리아의 박물관과 도서관과 관련하여 연구를 추구했다는 주장이 있다. 박물관에 의해 그리고 해부와 천문대에 의해 식물원과 동물원을 유지하려는 많은 학자들의 노력에는 과학적인 연구가 그 특징이다. 탁월한 수학자인 유클리드는 프톨레미의 궁정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단 11:6)

프톨레미 2세는 프톨레미 1세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내는 베르니체였다. 몇몇 보고에 따르면, 프톨레미 필라델푸스는 그의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 중의 하나였다. 그는 그의 부친이 그랬던 것보다도 더 배움을 사랑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동물원을 세웠고 또한 자연 과학의 지식을 촉진했다. 그는 동물들을 에디오피아와 남아프리카에서 사로잡아 알렉산드리아로 가져왔다. 그가 부추겨서 오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셉투아긴트 (70인역)를 낳은 번역 활동을 촉진했다.

이러한 정보는 프톨레미 1세 소텔과 그의 아들 프톨레미 2세의 힘을 말해주는데, 그의 힘은 그의 아버지보다 더 컸다.

이집트의 딸과 시리아의 왕의 결혼

6절 말씀은 이집트의 딸과 시리아의 왕의 결혼을 예고한다. 몇 해 후라는 표현은 '몇 년이 지난 후' (참조. 대하 18:2, 단 11:8, 13)를 의미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정치적 이유를 위해 통혼이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웠다. 남방 왕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와 그의 딸 베르니체가 참여했는데, 그녀는 주전 253년경에 북방 왕 안티오쿠스 2세 테오스와 결혼했다.

이 결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안티오쿠스에게 그 자신의 아내인 라오디케이아 혹은 라오디케와 이혼하도록 요구한 프톨레미 필라델푸스의 요구로 신방을 차렸다. 그의 의도는 두 나라 사이에 합의의 근거를 제공하려는, 문자적으로 '바로잡기를 하려는' 것이었다. 초기 교회교부인 제롬은 이 연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시리아를 처음 지배한 것은 성이 니카노르인 셀류쿠스였다. 둘째 왕은 안티오쿠스였는데, 소테르라고 불렸다. 셋째는 안티오쿠스 자신인데, 테오스 곧 신적인 자라고 불렸다. 그는 이집트의 둘째 지배자인 프톨레미 필라델푸스는 이 성가신 투쟁을 끝내기 위해서, 베르니케라는 이름의 그의 딸을 안티오쿠스에게 결혼시켰는데, 그는 이미 라오디케라는 전처와 두 아들 즉 성이 칼리니쿠스인 셀류쿠스와 또 다른 안티오쿠스가 있었다. 그리고 필라델푸스는 그녀를 펠루시움까지 호위하였고, 지참금 방식으로 무수한 금과 은을 수여하였으며, 이런 사정으로 페르노푸루스 혹은 지참금 수여자 (도탈리스)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로서는, 비록 베르니케를 그의 왕비로 간주하고 라오디케를 첩의 지위에 두었다고 말했었지만, 결국 라오디케에 대한 사랑에 압도되어 그녀를 그 자녀들과 더불어 왕후의 지위에 복귀시켰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변덕스럽게 베르니케를 또 다시 총애하게 될까 바 두려웠고, 그녀의 종들을 시켜 독을 사용하여 그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베르니케와 그녀가 안티오쿠스에게서 낳은 아들을 안티오쿠스의 왕자인 이카디오와 겐네우스에게 넘겨주고 나서, 그녀의 장자인 셀류쿠스 칼리니쿠스를 그의 아버지의 자리에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것이 이 구절에 언급된 일인데, 즉 여러 해 후에 프톨레미 필라델푸스와 안티오쿠스 테오스가 결연을 맺었을 것이고, 남방의 왕인 안티오쿠스에게 갔을 것이다. 그리고 본문은 그녀가 그 목표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그녀의 후손이 시리아의 왕좌에 머물지도 못할 것이며, 그 대신에 베르니케와 그녀를 거기까지 수행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그녀가 우세를 얻었던 안티오쿠스 왕도 그 아내의 독으로 살해되었다.

'그를 낳은 자' 에 대한 언급은 물론 프톨레미 2세에 대한 것이고, 그의 죽음은 뒤따르는 살인들을 재촉했다. 유사하게 베르니케는 '권세를 얻지' 못했는데, 즉 그 경쟁자인 라

오디케를 압도할 수 없었다. '서지도 못하고 권세도 없어질 것이라' 는 언급은 독살된 안티 오쿠스에 대한 것이다.

프톨레미 유에르게테스와 셀류쿠스 칼리니쿠스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서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나라로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단 11:7-9)

7-9절에 예고된 사건들은 프톨레미 3세 유에르게테스(주전 246-221년)와 셀류쿠스 3세 칼리니쿠스(주전 247-226년)를 다루고 있다. 남방의 새로운 왕이자 베르니케의 형제인 프톨레미 유에르게테스는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를 점령했고, 안디옥의 항구인 요새를 함락 시켰다. 예언이 진술하는 대로, 프톨레미 3세 유에르게테스는 '그녀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이다. 살해당한 베르니케의 이 형제는 복수로 셀류쿠스의 제국을 침공하고, 셀류키아와 안티 옥의 요새화된 구역을 함락시킨 후 바빌론에 이르기까지 그 왕이 지배하던 아시아의 더 큰 구역을 침략했다. 그는 예고된 대로 승리했다. 그런 뒤 전리품을 싣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그가 이집트로 가져간 노략 물들은 금 4000 달란트와 은 40,000 달란트와 2500개의 우상이 라고 알려져 있다. 폴리비우스(주전 208년-주전 126년경)는 프톨레미의 유에르게테스의 시 리아 침공과 그의 승리를 말해준다. "셀류키아는 프톨레미 유에르게테스 때 이후로 이집트 의 왕들에 의해 수비대를 두었기 때문인데, 그 때 그 군주가 베르니케의 살해에 분노하였기 때문에 시리아를 침공하여 이 도시를 함락시켰다." (폴리비우스, 역사들 V.58).

제롬에 따르면, 프톨레미가 되찾아간 형상들에는 280년 전에 캄비세스가 이집트에 가져간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업적으로 프톨레미 3세는 '시혜자 (Benefactor)'라는 의 미의 유에르게테스라는 칭호를 얻었다.

나아가 이 예고는 "그가 북방의 왕보다 더 많은 해를 계속하리라" 고 지적한다. 이 것은 그가 북방의 왕보다 더 많은 해를 통치하리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확하게 이렇게 되 었는데, 프톨레미 3세 유에르게테스는 주전 246년부터 221년까지 지배했던 반면에 셀류쿠 스 2세 칼리니쿠스는 247년에서 주전 226년까지 더 적은 해 동안 통치했기 때문이다.

9절은 "그리고 그가 남방의 왕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 자신의 땅으로 돌 아갈 것이라" 고 번역되어야 한다. 2년 후에 (주전 242년) 북방의 왕 셀류쿠스는 그의 권위 는 재정립하고 남방 이집트로 진군하였지만, 패배하였고 그저 소수의 남은 군대와 함께 안 디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주전 240년).

프톨레미는 지식에 관하여, 특히 순수 과학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그의 부친과 조 부의 발자취를 따랐다. 수학자 겸 천문학자인 에바스토스테네스 (Evastosthenes)는 알렉산드 리아의 도서관의 관리인이었고 그의 과학 연구가 장려되었다. 그의 그림자의 과학에 의해 지구에 둘레가 25,000마일이라고 계산하였다. 프톨레미 3세의 장려를 받았던 또 다른 과학 자는 시라쿠스의 아르키메데스였는데, 특수 중력과 지렛대 원리의 발견자였다.

프톨레미 필라파톨에 대항한 셀류쿠스 2세와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의 투쟁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의 넘침 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킨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인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엮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 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도표 16. 연대기 도표(주전 300년-60년)

BIBLE YEAR	SELEUCIDS	PTOLEMIES	JUDEA	ROME	ROMAN CONSULS
3700	SELEUCUS I (NICATOR)	PTOLEMY I (SON OF LAGUS/SOTER I)			2000C: Ptolemy and Seleucus 2001C: Seleucus and Ptolemy 2002C: Seleucus and Ptolemy 2003C: Seleucus and Ptolemy 2004C: Seleucus and Ptolemy 2005C: Seleucus and Ptolemy 2006C: Seleucus and Ptolemy 2007C: Seleucus and Ptolemy 2008C: Seleucus and Ptolemy 2009C: Seleucus and Ptolemy 2010C: Seleucus and Ptolemy 2011C: Seleucus and Ptolemy 2012C: Seleucus and Ptolemy 2013C: Seleucus and Ptolemy 2014C: Seleucus and Ptolemy 2015C: Seleucus and Ptolemy 2016C: Seleucus and Ptolemy 2017C: Seleucus and Ptolemy 2018C: Seleucus and Ptolemy 2019C: Seleucus and Ptolemy
3710					
3720	ANTIOCHUS I (SOTER)	PTOLEMY II (PHILADELPHUS)			
3730					
3740	ANTIOCHUS II (THEOS)	← DAUGHTER, BERNICE			
3750					
3760	SELEUCUS II (CALLINICUS)	PTOLEMY III (EUERGETES I)			
3770					
3780	SELEUCUS III (KERANOS/SOTER)				
3790	ANTIOCHUS III (THE GREAT)	PTOLEMY IV (PHILOPATOR)			
3800		PTOLEMY V (EPIPHANES)			
3810		← DAUGHTER, CLEOPATRA			
3820	SELEUCUS IV (PHILOPATOR, SOTER)				
3830	ANTIOCHUS IV (EPIPHANES)		HASMONEANS		
3840	ANTIOCHUS V (EUPATOR)	PTOLEMY VI (PHILOMETOR)	MATTATHIAS		
3850	DEMETRIUS I (SOTER)		JUDAS		
3860	DEMETRIUS II (NICATOR)		JONATHAN		
3870	ANTIOCHUS VII (EUERGETES EUSEBES SOTER SIDETES)	PTOLEMY VII (EUERGETES II, PHYSCON)	SIMON		
3880	ANTIOCHUS VIII (EPIPHANES PHILOMETOR CALLINICUS GRYPUS)		HYRCANUS I		
3890	ANTIOCHUS IX (PHILOPATOR CYZICENUS)				
3900	ANTIOCHUS X WITH DEMETRIUS IV PHILIPPUS I	PTOLEMY VIII (SOTER IILATHYRUS)	JUDAS (ARISTOBULUS) KING AND HIGH PRIEST		
3910			ALEXANDER JANNUS (KING AND HIGH PRIEST)		
3920	TIGRANES OF ARMENIA	PTOLEMY IX (ALEXANDER I)			
3930		PTOLEMY XI (AULETES/NEOS DIONYSOS)	ALEXANDRIA (QUEEN) HYRCANUS II (HIGH PRIEST) ARISTOBULUS (HIGH PRIEST)	ANTIP. POMPEY DAN & PRINCE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

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해라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단 11:10-19)

10-19절은 다른 부류의 이집트와 시리아의 지배자들을 다루고 있다. 폴리비우스는 그의 **역사들 (Histories)**에서 이 왕들에 대해 말한다.

바로 같은 때에 프톨레미 유에르게테스가 병이 들어 죽고, 필로파토르라는 성을 가진 프톨레미가 계승하고 있다. 성이 칼리니쿠스 혹은 파간인 셀류쿠스의 아들인 셀류쿠스 역시 이때에 죽고, 그의 동생인 안티오쿠스가 시리아 왕국에서 그를 계승하고 있다. 사실 같은 일이 이들 세 왕들의 경우에 일어났는데, 세 왕국에서 알렉산더의 첫 계승자들인 셀류쿠스와 프톨레미와 리시마쿠스가 위에서 진술한 바대로 모두 제 124회 올림피아드에 죽었던 경우처럼, 이들은 제 139회 올림피아드에 죽었다. " (폴리비우스, 역사들 II.71)

따라서 셀류쿠스 2세의 아들들은 보위에 올랐다가 2년 후에 소아시아 원정 중에 살해되었던 셀류쿠스 3세 (주전 226년- 주전 232년)와 그의 동생으로 보위에 올라 이집트와 전쟁을 재개했던 안티오쿠스 3세 대왕(주전 223년- 주전 187년)이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셀류키아의 요새와 코엘레-시리아와 두로와 프톨레마이스와 인근 성읍들의 지방을 회복시켰다. 셀류쿠스 2세의 아들들이 예언을 성취했는데, "그의 아들들이 ... 나아올 것이요" (단 11:10)

그리고 나서 프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가 이끄는 이집트의 대군이 일어나 무섭게 행하여 유대를 통해 진군하다가, 레바논과 바다 사이에서 이리로 행군하여 요단강 동쪽과 서쪽 모두의 많은 유대 도시들을 점령한 안티오쿠스 (3세)를 만났다. 이것은 주전 218년에 일어났다.

예언은 처음에는 프톨레미 4세의 군대가 안티오쿠스의 군대보다 더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전 219년의 봄에 6만 명을 거느린 안티오쿠스와 7만 명의 부대를 이끄는 프톨레미가 가자에서 남서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라피아에서 다시 만나 전투했다. 이때에는 프톨레미 4세가 승자로 드러났다. 패배한 안티오쿠스 3세는 보병 1만명과 기병 3백 명을 잃고 안디옥으로 퇴각했다. 그리고 1년의 평화 조약이 두 왕 사이에 서명되었다. 이 승리는 프톨레미 4세에게 항구적인 승리를 가져다주지 못한 것 같다. 성격상 게으르고 방종함으로 인해 승리했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안티오쿠스 3세와 평화를 맺는데 실패했다.

프톨레미 4세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하여 지중해 동부 지방을 순회하면서 그의 승리를 경축했다. 그의 부친이 일찍이 그랬던 것처럼, 프톨레미 4세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성전에 많은 선물을 하사했다. 이 이집트 왕은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는 호기심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이를 성취할 수 없게 되었다. 유대인의 전설에는 그가 마비가 되어 쓰러졌다고 이야기한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유감과 굴욕으로 인해 이집트의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누리던 모든 특권들을 박탈함으로써 그들을 벌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프톨레미가 유대인들에게 보였던 호의 때문에 그들에 대해

분노하던 비유대주민들이 왕의 예를 따라 이집트의 유대인들을 박해했다.

그렇지만 예언이 13절 이하로 계속된다. 이 절은 라피아의 전투 12년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술한다. 프톨레미 4세가 죽자 네 살 된 그의 아들이 계승하여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가 되었다. 안티오쿠스 3세는 그에게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한 동방의 혁혁한 승리에서 돌아와서, 질시의 눈을 다시 이집트에 보내고 페니키아와 시리아를 침공하여 가자를 점령했다. 그리하여 12년 후에 북방의 왕인 안티오쿠스 3세는 이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집트의 영토 정복을 향해 나섰다.

본문은 14절에서 남방의 왕인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에 맞서 일어난 자들이 많았다고 진술한다. 여기에는 안티오쿠스와 그와 동맹한 마케도니아의 필립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가신들 가운데에서의 봉기도 포함되었다. 많은 유대인들 역시 살해되었다. 이스라엘은 매번 패자의 편을 택하는 불행한 운명이었고, 이것은 나라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초래했다.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를 붙잡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자들 중에 즐겨 외국의 멍에를 모두 벗어 던지고 이로써 예언자들의 예고들을 성취하고자 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한 희망은 물론 절망으로 운명 지어졌다.

주전 200년 유대를 안티오쿠스의 손에서 빼앗기 위해 스코파스라는 이름의 용병 부대가 파견되었다. 역사는 이 원정의 일시적인 성공과 유대인들의 복속과, 수비대를 예루살렘에 둔 것을 이야기한다. 안티오쿠스가 이 문제에 주목할 수 있었을 때, 스코파스를 향해 진군하여 그를 요단강의 발원지에서 패퇴시키고 추격하였고, 그가 10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시돈으로 도망하였으나, 주전 198년 그를 포위하고 압박하여 항복시켰다. 안티오쿠스 대왕은 몇몇 도시를 점령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요세푸스는 역사가 폴리비우스가 이 일에 관해 쓴 것을 기록한다.

나는 드디어 그가 장군들에게 그들에 관해 썼던 서신들 자체를 내려놓으려 하지만, 먼저 메가로포리스의 폴리비우스의 증언을 제시하려 하는데, 그가 역사의 16권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프톨레미 군대의 장군인 스코파스는 서둘러 그 나라의 상부로 가서 겨울철에 유대인들의 나라를 전복시켰다.' 그가 또한 같은 책에서 말하기를, '스코파스가 안티오쿠스에게 정복되었을 때, 안티오쿠스는 바네아와 사마리아와 아빌라와 가다라를 받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루살렘이라 불렀던 성전 근처에 정착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에게로 들어왔는데, 이에 관해서, 특히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하여 말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는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다.' 이것이 폴리비우스가 이야기한 것이다. (유대고대사 12권.3장.3절)

이집트인들은 안티오쿠스의 맹공에 맞설 수가 없었다. 그의 군사적 기술과 능력은 프톨레미 5세보다 뛰어났고 따라서 안티오쿠스 대왕은 그가 원하는대로 프톨레미 에피파네스를 제거할 수 있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단 11:16). 그 영화로운 땅은 유대이다 (참조. 단 8:9, 렘 3:19).

17절은 안티오쿠스 3세가 '그의 나라의 힘을 다하여' 프톨레미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결심했었다고 진술한다. 주전 197년에 안티오쿠스는 함대를 이끌고 이집트의 영주 아래 있었던 길리기아와 튀키아와 카리아의 전체 해안을 공격했다. 그렇지만 안티오쿠스 3세는 결국 프톨레미 에피파네스와 협정을 맺었다. 로마의 떠오르는 세력이 왜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4세와 타협을 결정했는지 설명해준다.

이 협정은 왕실의 결혼으로 입증되는데, “또 여자의 말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단 11:17). 안티오쿠스가 주전 194-193년에 코엘레-시리아와 페니키아와 유대를 지참금으로 약속하고 프톨레미에게 결혼 시킨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언급이다. 의심할 것 없이 이집트를 합병할 첫 기회를 잡으려는 안티오쿠스의 의도였고, 그의 딸과 이집트 왕의 관계에 의지해서 그의 야망을 돕게 했다. 그러나 본문은 그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역사가 아피안은 안티오쿠스가 로마인들과의 전쟁을 기도했고 이것이 프톨레미 5세와 맺은 동맹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더 이상 로마인들과의 전쟁 의도를 숨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는 이웃 왕들과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다. 이집트의 프톨레미에게 그의 딸인 시리아라는 이름의 클레오파트라를 보내고 그녀와 함께 코엘레-시리아를 지참금으로 주었는데, 프톨레미 자신에게서 빼앗았던 것이고, 로마인들과의 전쟁 동안 조용히 잡아두기 위해 젊은 왕에게 이렇게 아첨하였다. 카파도기아의 왕 아리아라르테스에게는 그의 딸 안티오쿠스를 보냈고, 남은 하나는 페르가무스의 왕 유메네스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 자는 안티오쿠스가 로마인들과 전쟁에 임하려는 것과 그가 이 때문에 그와 결혼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것을 알자 그녀를 거절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왕과의 결혼 관계를 거절한 데 놀라고, 또한 그와 이웃이고 먼저 제의를 했던 그의 형제들, 곧 앗타루스와 펠레타레우스에게, 올 전쟁이 우선 의심스러운 문제이지만, 로마인들이 결국 그들의 용기와 인내로 우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말하기를, “만약 로마인들이 정복한다면, 나는 내 나라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만약 안티오쿠스가 승리자가 된다면, 나의 이웃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예상할 수 있거나, 내가 다스리도록 해준다고 해도, 그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그는 제안된 결혼을 거부했다. (아피안의 로마 역사: 시리아 전쟁 15권.1장.5절)

세속적 역사와 신성한 예언이 이 전체 기간 동안에 일치하는 것이 놀랍다.

유대인들이 프톨레미 왕가의 누구보다도 안티오쿠스 3세를 훨씬 더 좋아했다는 것을 흥미롭다. 처음에 안티오쿠스가 팔레스타인을 통제하던 때에는, 유대인들은 잘 살았고, 그들의 신앙의 관습을 자유롭게 수행하고 세금을 면제받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특권과 호의를 누렸다. 유대인의 율법이 정부의 인가를 받았다. 상인들이 금지된 식품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반입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안티오쿠스 3세는 수 천명의 유대인들을 설득하여 그가 세운 도시에 정착하게 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이 호의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이 기간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증가했다. 주전 1세기와 2세기에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예루살렘 근처에, 옴바에, 갈릴리와 요단 강 너머 여러 지역에, 프리기아에, 리디아에, 히르카니아, 이집트에, 그리고 키레나이카에 있었다. 팔레스타인이 시리아의 통제로 넘어가게 되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지역사회들은 정치적으로 분리되었다. 유대교에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18절은 안티오쿠스가 그의 얼굴을 서방, 즉 그리스와 소아시아의 해변들과 섬들로 향한 후에 로마인들에게 패한 것을 암시한다. 그는 이제 권력의 정상에 있었고 주전 196년까지 소아시아의 대부분이 그의 통제아래 있었다. 그리고 헬레스폰트를 건넌 후 트라체(Thrace)의 일부를 점령했다. 주전 192년까지 안티오쿠스 3세는 그리스에 상륙하여 거기에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전 191년 그가 테르모필라에 (Thermopylae)에서 로마인들에게 패배하자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주전 190년 서머나 (Smyrna) 근처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로마인들이 그의 8만의 군사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기고, 유럽과 소아시아에 대한 모든 주장을 그가 포기하게 만들면서 균열이 일어났다. 그에 대항하여 일어난 사령관(군주)은 로마 장군인 루키우스 스키피오 (Lucius Scipio)였는데, 다니엘은 그를 신적 진노의 도구로 간주한다.

안티오쿠스 3세를 고무하여 로마인들과 싸우게 만든 것은 카르타고의 장군인 한니발 (Hannibal)이었는데, 서머나의 전투(주전 190년)에서 패배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아피안은 로마인들과 안티오쿠스 3세의 평화를 표현한다.

우리는 그에게 이전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우리에게 유리하고 그 자신의 미래의 안전으로 이끌게 될 몇 가지를 부가하였다. 그는 유럽을 모두 그리고 모든 아시아 중에서 타우루스의 이 쪽을 포기해야 하고, 이후로 국경은 고정되어야 하고, 그가 가진 모든 코끼리와 우리가 규정하는 수만큼의 배를 내주고, 미래에는 코끼리를 없애고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의 배만 가지게 될 것이며, 20만 명의 인질을 보낼 것이고, 이들은 총독이 선택할 것이고, 그 때문에 초래된 이번 전쟁의 비용으로 500 유보인 달란트를 지불하고, 원로원이 조약을 비준할 때 2500 달란트를 더 지불하고, 12년 동안 12,000 달란트를 더 지불하되, 매년 분납하여 로마에서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모든 죄수들과 탈영병들을 내주고, 그가 유메네스의 아버지인 아타루스와 협약하여 취득한 나머지 소유들은 무엇이나 유메네스에게 내주게 될 것이다. 만약 안티오쿠스가 배신하지 않고 이 조건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원로원 (the Senate)의 비준에 따르는 평화와 우호를 제공할 것이다. (아피안의 로마 역사: 시리아 전쟁 XI.vii.38)

안티오쿠스 3세는 소아시아의 타우루스 산 서쪽의 모든 영토를 로마인들에게 내주어야 했다. 또한 그와 시리아인들은 15,000 달란트의 무거운 배상금을 물도록 요구를 받았는데, 오늘날의 화폐가치에 따르면 3000만 달러가 넘는다. 이 배상금의 지불을 보증하기 위해, 12명의 시리아 고위 귀족들을 보장으로 주어야 했다. 셀류시드의 부유한 왕가가 갑자기 폐허가 되고 말았다. 엄청난 로마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안티오쿠스 3세는 나라의 신전들과 또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성전을 약탈했다. 신전에는 금이 저장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티오쿠스 3세가 그의 영역의 신전들에서 금을 훔치려고 착수했을 때, 반대에 부딪혔고 그의 나라의 북동부의 신전의 금을 약탈하는 동안에 살해되었다. 안티오쿠스 3세의 죽음을 언급하여, 예언에 진술하기를,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단 11:19).

안티오쿠스 대왕은, 만약 그리스를 그대로 두고 만족하였다면 고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정복자들 중의 하나로 역사에서 물러났을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 대신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패배하고 말 것이라는 18절의 예언을 성취하였다.

셀류쿠스 필로파토르, 세금의 대가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단 11:20). 안티오쿠스 대왕 뒤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앞서 다스리던 셀류시드가의 왕은 셀류쿠스 4세 필로파토르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세금으로 압박했다. 그의 부친에 대한 로마의 승리의 결

과로서, 그는 로마인들에게 매년 일천 달란트의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거대한 양을 맞추기 위해, 셸류쿠스 4세는 그의 영토에 있는 모든 땅에 무거운 세금을 매겼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세가 포함되었다. 마카비 후서에 따르면, 시리아 징세관인 헬리오도루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보화들을 가져갔다.

대제사장 오니아스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악을 멀리한 덕으로 거룩한 예루살렘성에서는 사람들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다. 그 때에는 이교도들의 왕들도 성소를 존중히 여기고, 최고의 선물을 바쳐서 성전의 영광을 드러냈다. 아시아의 왕 셸류쿠스까지도 자기 수입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그런데 빌가 가문 출신으로서 성전의 경리책임을 맡았던 시몬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와 대사제 사이에 예루살렘의 시장 관리권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생겼다. 시몬은 오니아스를 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코엘레-시리아와 페니키아 총독으로 있던 다소 (Tarsus) 출신 아폴로니우스에게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금고에 말할 수 없이 많은 돈이 가득 차 있다는 것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돈은 제사용이 아니므로 왕이 마음대로 가질 수도 있다고 알려 주었다. 아폴로니우스는 왕을 찾아 가 자기가 들은 대로 성전에 있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총리대신 헬리오도루스를 뽑아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그 돈을 몰수해 오라고 명령하였다. 헬리오도루스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떠났다. 걸으로는 코엘레-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여러 도시들을 시찰하여 가는 것처럼 꾸몄으나 사실은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행이었다. 헬리오도루스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의 대사제에게서 정중한 환영을 받았다. 그는 자기가 들은 정보를 그에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사실 여부를 캐물었다. 대사제는 금고 안에 얼마만큼의 저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일부는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한 돈이라는 것과 또 일부는 토비아의 아들로써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히르카노스의 것임을 설명하고 헬리오도루스가 들은 정보는 불경건한 시몬의 거짓말로서 사실은 그 총액이 온 사백 달란트와 금 이백 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뿐 아니라 신성한 그 성소와 온 세상 사람들이 존중히 여기는 신성불가침의 이 성전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마카비 후서 3:1-12, 예루살렘 바이블)

헬리오도루스는 유대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벌을 받았고, 그 결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성전의 보화는 남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호위병을 데리고 성전 금고에 가까이 갔을 때 모든 신령들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신 분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성전을 침범하려고 하던 자들은 이 하나님의 힘에 압도되어 기운을 잃고 기절해 버렸다. 그 말은 맹렬하게 돌진하여 앞발을 쳐들고 헬리오도루스에게 달려들었다. 그 말을 타고 나타난 기사는 황금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와 함께 두 젊은 장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굉장한 미남인데다가 입고 있는 옷마저 휘황찬란하였다. 그들은 헬리오도루스 양쪽에 하나씩 서서 그를 쉴 새 없이 채찍으로 때려 큰 타격을 주었다. 헬리오도루스는 꼼짝없이 땅에 엎드러져 질은 어둠 속에 빠져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거두어 들것에 엮어 놓았다. 많은 수행원들과 호위병들을 데리고 성전금고에 들어갔던 그는 이제 자기 몸도 가눌 수 없게 되어 하느님의 주권을 밝히 깨닫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운반되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호된 매를 맞고 다시 살아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입이 막혀 넘어져 있을 때에 유대인들은 당신의 성소를 영광스럽게 해 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통 공포와 혼란 속에 빠졌던 성전은 전능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헬리오도루스와 같이 왔던 사람 몇몇이 급히 오니아스에게로 가서 헬리오도루스가 쓰러져 마지막 숨을 넘기려고 하니 그 목숨을 살려 주시도록 지극히 높으신 분께 기도해 주기를 청하였다. (마카비 2서

3:24-31, 예루살렘 바이블)

헬리오도루스가 성전을 약탈하도록 파견된 직후에, 셀류쿠스 필라파토르가 갑자기 불가사의하게 제거되었다. 이것은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단 11:20)를 설명해준다. 그 소식은 아피안에 의해 기록된다.

그 후 안티오쿠스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셀류쿠스가 그를 계승하고, 그 동생인 안티오쿠스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 데메트리우스를 로마인들에게 인질로 주었다. 안티오쿠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셀류쿠스가 궁정 관리의 하나인 어떤 헬리오도루스의 음모의 결과로 암살되었지만, 헬리오도루스 자신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유메네스와 앗타루스에 의해 축출되고, 그 자리에 안티오쿠스를 등극시켜 그의 선의를 지키고자 하였는데, 확실히 어떠한 다툼은 로마인들의 의심을 받기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아피안의 로마 역사: 시리아 전쟁 VIII. 45)

그래서 12년 동안 다스렸던 셀류쿠스 4세는 스스로 정권을 인수하려고 의도했던 헬리오도루스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사건이 뒤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끔찍한 박해의 배경을 이룬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와 성전의 모독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귀홀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흠여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흠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앞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코지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단 11:21-29)

단 11:21-25은 앞서 단 8:9-14, 23-25의 '작은 뿔'로 암시되었던 시리아의 지배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주전 175년 - 주전 164년)를 다루는 주요 단락이다. 그는 시리아의 세력이 쇠락하고 서쪽에서 로마가 흥기하던 때에 통치했는데, 주전 164년에 죽음으로써 로마인들에게 굴욕을 당하는 것만은 피하였다. 성서의 관점에서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어진 천사의 계시에서, 이것은 그리스의 제 3 제국 전체의 가장 중요한 양상이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그가 유대인의 성전과 제단을 모독하고 유대 백성들을 무참히 박해한 것이었다.

그의 선왕이자 형인 셀류쿠스 4세 필로파토르와 비교하여, 그는 '비열하거나 경멸스러운 인간'으로 묘사된다. 그는 스스로 **에피파네스 (Epiphanes)**라는 칭호를 부쳤는데, 영광

스럽다는 의미이고, 신처럼 간주되려는 그의 소원과 일치한다. 아피안은 그의 왕위 등극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대왕의 아들인 안티오쿠스가 시리아의 왕위에 등극했다. 그를 시리아인들은 에피파네스 (저명한 자)라고 불렀는데, 정부를 찬탈자들에게 빼앗겼을 때 자신의 참된 왕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아피안의 로마 역사: 시리아 전쟁 X.45)

21절의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라는 표현은 그가 왕권을 명예롭게 얻은 게 아니라 빼앗았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이다. 그의 선왕이 죽었을 때, 왕권을 위한 여러 가능한 후보자들이 있었다. 아마도 가장 적법한 지배자는 그의 형 셀류쿠스의 어린 아들 데메트리우스였을 것인데, 그때 로마인들에 의해 로마에 인질로 붙잡혀있었다. 또한 셀류쿠스 4세의 더 어리고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도 있었는데, 아직 시리아에서 어린 애였다. 셀류쿠스 4세의 동생인 안티오쿠스 4세는 그의 형이 죽었을 때 아테네에 있다가, 거기서 그는 그의 형 셀류쿠스가 다니엘 11:20에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라고 예언된 대로, 헬리오도루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그의 부친을 위해 로마에 14년 동안 인질로 있었다. 셀류쿠스가 헬리오도루스의 손에 죽기 전에 안디옥으로 소환되었다. 그가 수도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형이 죽었지만, 페르가몬의 왕의 도움으로, 그의 형의 암살자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시리아에 있던 어린 안티오쿠스의 후견인인 체 하면서, 안티오쿠스 4세는 계속 안디옥으로 가서 여러 가지 음모에 의해 왕권을 확보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고에 따르는데,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귀홀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단 11:21)

22절은 안티오쿠스 4세의 군사적 활동들과 그의 적들에 대한 여러 가지 승리를 언급한다. ‘동맹한 왕’에 대한 언급은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의 살해를 예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티오쿠스에 의해 주전 173년에 명령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사실상 그 때에 신정정치(神政)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언약의 군주 (the prince of the covenant)’ 라는 칭호를 지녔다. 단 11:28에 ‘언약’이 유대인 국가에 대해 사용된다.

오니아스 3세는 헬리오도루스가 성전 보화를 얻으려고 할 때 대제사장이었지만,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었을 때 오니아스의 동생 야손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 대제사장직을 찬탈했다. 왕에게 엄청난 양의 세입을 약속하고, 그는 대제사장이 되었고 헬레니즘을 나라 안에 도입하였다. 삼 년 후 야손은 성전의 행정관인 메넬라우스를 보내 왕에게 돈을 운반시켰다. 은 300 달란트라는 비싼 값으로, 왕은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메넬라우스는 그 양을 지불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이 시점에 실제 대제사장인 오니아스의 살해가 일어난다. 마카비 2서의 저자가 진술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다르소와 말루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방이 왕의 첩, 안티오쿠스에게 선물로 증여되었다는 것을 알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왕은 고관 중의 한 사람인 안드로니쿠스에게 모든 일을 위임하고 폭동을 진압하러 급히 그리로 달려 갔다. 그러자 메넬라오스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여 성전에서 쓰는 금 그릇들을 훔쳐내다가 안드로니쿠스에게 바쳤다. 그는 이미 띠틈(Tyre)와 그 부근 여러 도시에 성전 기물을 팔아 먹은 적이 있었다. 이런 비행(飛越)을 확실히 알게 된 오니아스는 안디옥 근처에 있는 다푸네라는 불가침의 장소로 피난하여 그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그래서 메넬라오스는 안드로니쿠스와

손을 잡고 그에게 오니아스를 살해하라고 청하였다. 안드로니쿠스는 오니아스를 찾아 가서 맹세까지 하며 악수를 청하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속임수였다. 오니아스는 의심을 하면서도 설득에 못 이겨 피신처를 나왔다. 그러자 안드로니쿠스는 정의도 아랑곳없이 그 자리에서 그를 죽여 버렸다. 유대인들은 물론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부당한 살해사건에 대해서 몹시 분개하고 분노를 터뜨렸다. (마카비 2서 4:30-35, 예루살렘 바이블)

23절은 다른 나라들, 특히 이집트와 그의 다양한 동맹을 기술하는 것 같다. 그 때에 안티오쿠스의 두 조카들인 프톨레미 6세 필로메테르와 프톨레미 7세 유에르게테스 (Physcon-피스콘) 사이에 이집트의 지배를 놓고 권력 경쟁이 있었다. 안티오쿠스는 프톨레미 필로메테르를 지지했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할 뿐이었다.

군사 작전이든 음모에 의해서든 그의 나라를 확장하기로 결심하고, 안티오쿠스 4세는 그의 부친과는 달리 그의 지배 아래 있던 나라의 가장 부유한 장소들을 약탈했다. 그의 적들이 예상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공격했다. “그는 노략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흠여 주며” 라는 표현은 그가 확보했던 부의 분배를 가리킨다.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는 구절은 마카비 1서 1:16-20에 따르면 그가 다스리기를 열망했던 이집트를 공격하는 계획을 언급한다.

안티오쿠스는 자기 왕국을 튼튼히 세우고는 이집트 땅에까지 손을 뻗쳐 두 왕국을 함께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었다. 그는 대군을 거느리고 병거, 코끼리, 기병, 큰 함대를 앞세워 이집트로 쳐들어가서 이집트 왕 프톨레미를 공격하였다. 프톨레미는 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망쳐 버렸다. 안티오쿠스는 이집트의 여러 요새도시들을 점령하고 많은 전리품을 빼앗았다. 백 사십 삼년에 이집트를 쳐부순 안티오쿠스는 돌아오는 길에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 (마카비 1서 1:16-20)

예루살렘 바이블의 25-28절은 안티오쿠스의 첫 이집트 출정의 개요이다.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에 대해 여러 번 군사 작전을 벌였다. 25절은 남방의 왕 프톨레미 4세가 안티오쿠스의 기만 때문에 그와 맞서지 못하리라고 진술한다. 남방의 왕에 대한 적군의 정확한 힘이나 반역에 대한 기록은 없다.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 라는 표현은 바로의 조신 (朝臣)을 표시한다. 분명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한 나쁜 조언을 프톨레미 4세 필로메테르에게, 그의 모친인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후에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오쿠스의 군대는 프톨레미의 군대를 휩쓸었다.

안티오쿠스가 프톨레미 필로파테르를 정복하였을 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인들은 그의 동생 프톨레미 피스콘을 이집트의 왕좌에 등극시켰다. 거기서 안티오쿠스는 필로메테르를 그의 보호 아래 두었다. 한편으로 안티오쿠스는 오로지 필로메토르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공언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필로메토르는 그의 외삼촌의 무사 공평함을 믿었다고 공언했다. 외삼촌과 조카로서, 그들은 친구였고 한 상에서 같이 먹으며 필시 거짓으로 서로 정책을 논의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안티오쿠스 4세와 필로메토르에 의한 이집트 정복 계획은 프톨레미 피스콘을 왕좌에서 제거하지 못했다. 모든 음모에도 불구하고, 안티오쿠스는 예언을 계획하고 성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는 이집트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그의 증오와 성전의 부에 대한 그의 탐욕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에 대한 그의 첫 출정을 끝내게 되자, 그의 관심을 이스라

엘 나라로 돌렸다. 마카비 1서의 저자는 어떻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에 대한 그의 첫 출정 후에 성전을 약탈했고, 율법에 충실하게 남으려는 유대인들을 박해했는지 말해 준다.

안티오쿠스는 자기 왕국을 튼튼히 세우고는 이집트 땅에까지 손을 뻗쳐 두 왕국을 함께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었다. 그는 대군을 거느리고 병거, 코끼리, 기병, 큰 함대를 앞세워 이집트로 쳐들어가서 이집트 왕 프톨레미를 공격하였다. 프톨레미는 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망쳐 버렸다. 안티오쿠스는 이집트의 여러 요새도시들을 점령하고 많은 전리품을 빼앗았다. 백 사십 삼년에 이집트를 쳐부순 안티오쿠스는 돌아오는 길에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무엄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 제단, 등잔대와 그 모든 부속물, 제상, 술잔, 그릇, 금향로, 휘장, 왕관 등을 약탈하고 성전 정면에 씌웠던 금장식을 벗겨 가져갔다. 또 그 은은 물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감추어 두었던 보물들을 찾아내는 대로 모두 약탈하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 오만 불손한 욕설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는 큰 슬픔이 넘쳐;

지도자와 원로들이 탄식을 하고 처녀 총각들은 기운을 잃었으며,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간 곳이 없었다. 신랑들은 슬픔에 잠기고 신부는 신방에 앉아서 탄식만 하였다. 온 땅은 주민들의 슬픔으로 초상집같이 되었고 야곱의 집은 온통 수치로 뒤덮였다. (마카비 1서 1:16-28, 예루살렘 바이블)

이집트에 대한 안티오쿠스의 첫 출정은 주전 170년 동안에 벌어졌고, 위에 기술된 그의 이스라엘 침공은 주전 169년, 셀류시드 시대 143년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에 대한 안티오쿠스의 2차 출정

이집트에 대한 안티오쿠스의 제 2차 원정은 '정한 때에' 즉 하나님에 의해 왔다. 안티오쿠스는 프톨레미 4세 필로메토르를 거의 생포할 뻔 하였지만, 알렉산드리아 시를 점령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마침내 이집트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성공은 이전 원정 만큼 크지 못했는데, 진술된 대로였다.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단 11:29). 그래서 제 2차 원정은 첫 번과 같이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성공이 없는 이유는 로마의 개입이었다. 안티오쿠스의 제 2차 출정이 이제 기술된다.

이는 깃담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단 11:30-31)

깃담 혹은 킷담이라는 단어는 사해 문서에서 발견되었는데, 지중해 특히 사이프러스의 사람들과 땅들에 대한 일반적 명칭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 용어는 로마를 가리키는데, "깃담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단 11:30). 이들은 알렉산드리아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티오쿠스에게 이집트에서 그의 군대를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카이우스 포필리우스 라이나스의 등 뒤에 로마 해군이 있었다. 메가로폴리스의 폴리비우스는 이 사건을 자세히 말한다.

안티오쿠스가 프톨레미에게 접근하여 펠수시움을 점령하려 하였을 때, 아널오쿠스의 로마 사령관 카이우스 포필리우스 라이나스가 멀리서 그에게 문안을 하고 손을 내밀어,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원로원의 명령서 사본을 넘겨주고, 먼저 읽되 그에게 문안하는 자의 의도가 우의적인지 적대적인지 알기 전에 관습적인 우의의 표시로 당연히 생각하지는 말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왕이 그것을 읽고 이 정보에 관해 그의 친구들과 연락하는 게 좋다고 말했을 때, 포필리우스는 무례하고 아주 거만하다고 생각되는 태도로 행동했다. 그는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안티오쿠스 주위에 원을 긋고, 그가 서신의 내용에 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 원 안에 머물러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왕은 이 권위주의적인 절차에 깜짝 놀랐지만, 잠시 주저한 후에 로마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포필리우스와 그의 일행은 모두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문안했다. 그 서신은 그에게 즉시 프톨레미와의 전쟁을 끝내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정한 날이 지나자, 그의 군대를 시리아로 철수시켰는데, 깊은 상처를 입고 불평이 심했지만, 현 상황을 포기하게 되었다. 포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일을 정리하고 두 왕들에게 거기서 함께 행동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폴리ारा투스를 로마로 보내라고 명령한 후에, 키프러스로 향해했는데, 지체하지 않고 섬에 있는 시리아 부대를 쫓아내기 원했다. 그들이 도착하여 프톨레미의 장군들이 패배하고 키프러스의 정세가 대대로 뒤죽박죽인 상태인 것을 알고, 속히 시리아 군대를 그 나라에서 퇴각시키고, 그 부대가 시리아로 가는 배를 탈 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식으로 로마인들은 거의 부서져 존재가 없어질 뻔한 프톨레미의 왕국을 구했다. 알렉산드리아의 위치와 이집트 전체가 거의 절망적이었을 때, 단지 페르세우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모두가 다시 바로 잡혔듯이, 행운은 그렇게 페르세우스와 마케도니아의 일의 방향을 정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안티오쿠스가 확신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로마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폴리비우스, *역사들-Histories* XXIX.27)

로마와의 전쟁을 원치 않아서, 안티오쿠스는 크게 불쾌하고 실망하여 이집트에서 즉시 물러나 이집트를 로마 세력에 양도했다. 로마가 데살로니가의 남방 피드나 (Pydna) 근처에서 마케도니아의 페르세우스 (Perseus)에 승리한 후 라에나스의 함대는 이집트로 향해했다. 로마인들과 마케도니아의 페르세우스와의 전투의 연대는 월식 (lunar eclipse)으로 정해진다. 이 월식의 연대는 리비 (Lyvy)에 의해 정해지고 언급된다.

진영의 구축이 완결된 후, 그 전해에 집정관이었던, 제 2 군단 병사들의 호민관인 가이우스 술피키우스 갈부스는 총독의 허락을 받아 병사들을 모이도록 소집하고, 다음 날 밤에 밤 두 시에서 네 시 사이에 월식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나쁜 전조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술피키우스가 말하기를, 이것은 일정 시간에 자연의 정기적인 순서로 일어나는 까닭에, 시간에 앞서 계산하고 예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해와 달이 뜨고 짐이 잘 이해되는 만큼 놀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달이 만월이 되기도 하고 쓰러져서 좁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 달이 예고된 시간에 월식이 되었을 때, 로마 병사들은 갈부스의 지혜를 거의 신적으로 간주했으나, 마케도니아인들은 그것을 왕국과 나라의 몰락을 예고하는 국상의 조짐으로 보았고, 어떤 역술가도 그들의 신념을 흔들지 못했다. 달이 평상처럼 비취기 시작할 때까지, 마케도니아 진영에서는 소동과 통곡이 있었다. (리비의 연대기 XLIV. 37)

근대 천문학은 이 월식의 연대가 주전 168년 6월 18일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정한다. 이것은 고대 로마 달력이 적어도 70일을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월식 수 일 후에 로마인들은 페르세우스를 패배시켰다. 로마인들이 단 한 번의 전투에서 그렇게 많은 마케도니아인

들을 죽였던 적이 없었다는 것에 선뜻 동의한다고 리비가 진술하는데, 거의 이 만 명이 살해되었다. 페르세우스의 패배 때문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로마인들로부터 퇴각하여 시리아로 돌아왔다.

안티오쿠스가 로마인들의 반대에 부딪힌 결과, 그는 다시 분노를 거룩한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돌렸다. 이것이 마카비 2서에 기록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안티오쿠스 왕의 귀에 들어가자 왕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여 크게 격분하였다. 그는 이집트를 떠나 예루살렘을 맹렬히 공격하여 점령해 버렸다. 거기에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가차 없이 칼로 쳐 죽이고 집으로 도망간 사람마다 가차 없이 칼로 쳐 죽이고 집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모두 학살해 버리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되어 젊은이와 늙은이의 살육, 여자와 어린이의 학살, 처녀와 젖먹이의 도살이 자행되었다. 단 사흘 만에 팔만 명이 살해되었는데 그 중 사만 명은 백병전을 하다가 죽었다. 그 뿐 아니라 노예로 잡혀 간 사람의 수도 살해된 사람의 수만큼 많았다. 안티오쿠스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엄하게도 세계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성전으로 들어갔다. 왕을 인도한 사람은 자기 율법과 조국을 배반한 메넬라오스였다. 안티오쿠스는 거룩한 기물에 그 더러운 손을 대고 또 다른 왕들이 이 성전의 발전과 영광과 영예를 위해서 바쳤던 봉헌물을 그 더러운 손으로 마구 쓸어 갔다. 이 곳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하시어 잠시 동안 그 성전을 돌보아 주시지 않고 있음을 모르고 안티오쿠스는 잔뜩 오만에 부풀어 있었다. 만일 이 곳 백성이 많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전에 셀류코스왕의 파견으로 성전 금고를 조사하러 왔던 헬리오도로스와 마찬가지로 안티오쿠스도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채찍으로 얻어맞아 그런 방자한 행동은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마카비 2서 5:11-18)

안티오쿠스 4세가 시리아로 돌아간 후,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자들 즉 그가 첩자로 이용하려던 배교한 유대인들에게 정보를 얻었다. 이들은 그리스 동화 주의적 경향을 종교공존주의자들 사이에 퍼뜨리려고 시도했던 헬라화한 유대인들이었다 (마카비 1서 1:11이하 참조). 이 시기의 역사는 마카비 1서와 2서에 있다.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안티오쿠스는 제단에 암태지를 바치고 매일 계속되는 제사를 금지함으로써 성전의 제단을 더럽혔다 (마카비 1서 1:44-54 참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단 11:31).

멸망의 가증한 것을 히브리어에서 소름끼치게 만드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것은 거룩한 장소에 세워진 우상이나 형상을 가리킨다. 이 사건은 마카비 2서의 저자에 의해서도 언급되어 기록된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안티오쿠스왕은 아테네의 원로 한 사람을 유대인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생활규범을 버리라고 강요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전을 올림피아의 제우스신에게 봉헌하게 하고 그리심 산의 성소는 그 지방 사람의 소원대로 나그네의 수호신인 제우스에게 봉헌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차마 견딜 수 없을 만큼, 악은 날로 더해만 갔다 이방인들은 이 성전 안에서 온갖 방종과 향락을 일삼았다. 그들은 거룩한 성전 경내에서 창녀들과 놀아나고 부녀자들을 농락하였다. 그 뿐 아니라 법에 금지된 물건들을 성역 안에 끌어 들였다. 제단에는 율법에 금지된 부정한 고기를 쌓아 놓았다. 안식일은 물론 조상 전래의 축제도 지킬 수 없었으며 심지어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었다. 왕의 탄생일은 매달 지켰으며 그 날에는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지독하게 강요받아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디오니소스 축제일이 되면 담쟁이 풀로 엮은 관을 쓰고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행렬에 참가해야만 했다. 프톨레마이스의 사람들의 제안으로 근처에 있는 그리스의 여러 도시에도 칙령을 반포하여 유대인을 괴롭히는 똑같은 정책을 써서 그들에게 부정한 고기를 먹게 하였으며 생활양식을 그리스 식으로 바꾸지 않는 유대인들은 모조리 죽여 버리게 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비참한 운명이 자기들에게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과연 어떤 여자 둘이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왔다. 사람들은 그 여자들의 어린애를 젓가슴에 매달게 하고 거리로 끌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인 다음 높은 성벽에서 떨어뜨려 죽였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근처 동굴에 함께 모여서 안식일을 몰래 지켰다고 해서 총독 빌립보에게 고발되어 한꺼번에 화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존중한 나머지 그들 자신을 방어하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 (마카비 2서 6:1-11)

다니엘 11:31에 언급된 멸망하게 만드는 가증한 것은 분명히 이중적으로 성취되는데, 제우스 올림푸스의 형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마 24:15에서 언급하시는 것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유대고대사(Antiquities)에서 요세푸스는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성전의 더럽힘과 삼 년 후에 유대 마카비에 의해 일어난 재 봉헌의 연대를 말한다. 이 문제에 관해 요세푸스가 기록한다.

그러므로 안티오쿠스의 군대의 장군들이 자주 패퇴하게 되자, 유다스는 백성들을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많은 승리들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지정된 제물을 드려야 마땅하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가 전체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이 황폐하고 그 문들이 불탔으며 식물들이 성전에서 제멋대로 자란 것을 보자마자, 그 황폐함 때문에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애곡하기 시작했고 성전을 보면서 아주 당황했으므로, 그의 군병들을 몇 사람 택하여 그가 성전을 청결하기까지 성에서 파수하는 자들과 싸우라고 명령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신중하게 일소하고 새로운 기명들과 등대와 [진설병] 상과 금으로 된 [분향] 단을 들여올 때, 대문들에 막을 치고 거기다 문들을 덧냈다. 그는 또한 [번제] 단을 끌어내고 그가 모아오고 철 도구로 떠내지 않은 그러한 돌들로 새 단을 세웠다. 그리하여 마케도니아인 들이 아펠레우스라고 부르는 카슬레우 (Casleu) 월 25일에 등대 위에 등을 밝히고, [분향] 단에 향을 드리고 [진설병] 상에 떡들을 놓고 새 [번제] 단 위에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이 일들이 신적 예배가 퇴락하여 더럽고 흔하게 이용되어 버리고 난 삼 년 후 바로 그 날에 일어난 결과가 되었는데, 성전이 안티오쿠스에 의해 모독을 당하고 나서 그렇게 삼 년을 계속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모독은 145년 제 153차 올림피아드 아펠라우스월 25일에 일어났지만, 148년 제 154차 올림피아드 아펠라우스월 25일 같은 날에 다시 봉헌되었다. 그런데 이 모독은 408년 전에 주어진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일어나게 되었는데, 마케도니아인 들이 그 예배를 [얼마 동안] 해체시킬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유대고대사 12권.2장.6절)

유대인의 신앙에 반대되는 성전의 모독은 마카비 반란을 재촉했고, 안티오쿠스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되면서 수 만 명의 이스라엘인이 죽었다. 유대인의 신앙에 대한 안티오쿠스의 반대는 단 11:32에 예언되어 있고, 어떻게 그가 그들을 부패시키려 했는가를 가리켜 주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는 표현대로 유대 백성들의 강한 반응이 지시된다. 유대인들 중에는 왕의 아침에 굴복하여, 동료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에게 반란을 일으키자 그들로부터 이탈한 사람도 있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용감한 자들과 소심한 자들을 가리고 분리하는 때였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 하는 자를 궤홀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궤홀로 그들과 친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단 11:31-35)

교훈과 실례에 의해 이해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때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오쿠스는 주님께 헌신되었던 유대인들의 일파를 제거하려고 시도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성도들을 정화하는데 기여했을 뿐이었다. 이 상황은 '많은 날' (단 11:33)의 한도에 국한되었고, 마카비가문이 안티오쿠스의 압제의 멍에를 부서뜨릴 때까지였다.

본문은 나아가 그들이 넘어지게 될 때, "도움을 조금 얻게 되리라" (단 11:34) 고 진술한다. 작은 도움은 마카비 가문에 의해 성취되었던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얻은 가장 큰 승리는 작은 도움일 뿐이다. 실제 구출은 주님께로부터 와야 한다.

34절의 후반부에 따르면, 성실하게 그들의 이유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마카비 무리에 가담하였던 유대인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은 궤홀로 그들과 친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명 있는 유대인들 중에 이 충들에서 쓰러진 자들이 있었다. 이것은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때까지 시험하고 축출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놀랍게도 단 11:1-35에는 대략 135개의 예언적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예고들은 모두 성취되고, 다음의 사건들에 대한 인상적인 도입을 구성한다.

자의로 행하는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단 11:36-39)

36절의 현 지점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다루는 예언이 세밀하고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립되어왔다는 것은 흥미롭다. 그렇지만 36절에서 시작하여, 주석가들은 정확한 성취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이븐-에즈라가 자의적인 왕을 콘스탄틴 대왕과 동일시했고, 라쉬와 칼빈은 그를 로마 제국 전체를 나타낸다고 이해했고, 제롬과 테오도레트와 루터와 J. N. 다비 등의 그와 신약 성경의 적그리스도를 동일시했던 이유 때문이다. 단 11:36-45을 진정한 성서라고 믿는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미래로서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단 11:36-45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세 가지 주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1)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다소 역사적-예언적인 정보, 2) 역사에 정확하게 상응하지 않는 허구 정보, 3) 아직 성취되지 않은 진정한 예언이다. 이 구절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의 간략한 반복이라는 것이 본 필자 (유진 폴스티히)의 견해이다. 그의 성격과 이어서 그의 군사적인 활동을 다루는데,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의 종말과 셀류시드 통치의 종말이 일치한다.

36절에 따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뜻대로 행할 절대 군주이다. 안티오쿠스가 그의 법정 화폐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고 진술하는 것을 생각했던 에피파네스라는 칭호 자체에서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께 속하는 자질을 주장했다는 것이 잘 증명된다. 에피파네스는 그의 신격을 매우 진지하게 잘 받아들였다. 그의 동전에서 처음으로 '테오스' (신)로 가장했고, 나타났다 (실제적인 육화)고 덧붙인 것은 신성과 그의 자기-동일시를 가리켰다. 늘어가기만 하는 신성의 강박증은 연속된 그의 동전에 나타나는데, 성서가 선언하는 바와 똑같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단 11:36). 이것을 안티오쿠스 4세가 행했는데, 그의 헬라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압제를 통해서, 그리고 성전의 황폐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의 죽음까지 혹은 주님께서 끝나리라고 포고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고통의 시한까지 그의 계획은 형통했다.

안티오쿠스는 그의 조상들의 신성들보다 외래의 신성들을 더 존중했다. 이 진술은 아마도 자기 전통을 던져버리고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하려 했던 배교한 유대인들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이 되도록 이루어진다. '여자의 사모하는' (단 11:37)이라는 표현은 담무스 여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인들에게 아도니스로 알려져 있었고, 그 숭배가 여자들에게 인기였다(겔 8:14). 궁극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는 아무 신성도 존중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성전의 보고를 약탈할 각오였다.

그렇지만 38절에 따르면 그는 '세력의 신'에 대한 약간의 존경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전쟁의 신인 마르스에 대한 언급이라고 제시했던 학자들이 있다. 마르스는 로마의 신이기 때문에 그의 조상들은 몰랐던 신이다. 그런데도 이 신은 그가 상징하는 것 때문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존경을 받았다. 안티오쿠스는 그의 조상들과는 반대로 완전히 물질주의자이다. 따라서 그의 활동은 완전한 물질주의에 맞추어 전쟁과,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존경하는 특징이 있다.

39절에서 에피파네스 4세가 좋아하던 자들을 고위직에 올렸다고 진술한다. 유대인 배교자들의 고위직 임명은 안티오쿠스의 통치 방법이었다. 이것은 대제사장 오니아스를 대신하여 야손을 임명하고 나서 야손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으로 메넬라우스를 임명한 데서 알 수 있다 (마카비 2서 4:7-29).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몰수된 재산들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분배되고 매각되었다.

40-45절은 안티오쿠스의 생이 끝 무렵에 일어났던 소식과 사건들을 담고 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예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

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니라. (단 11:40-45)

이때에 남방의 왕인 프톨레미 6세 필로메텔이 그의 외삼촌과 싸우려고 왔다. 안티오쿠스 4세는 이에 대응하여 거대한 군대로 그를 휩쓸어버리고 압도했다. 그는 광풍처럼 병거들과 십자가와 해군을 가지고 왔다. 이집트와의 이 투쟁에서 영광스러운 땅, 즉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을 통과했다. 그러나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나라들을 포함하는 요단 동편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 공격에서 유대의 적이었고 안티오쿠스 4세와 행동을 같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유다스 마카베우스는 성전의 재 봉헌 후에 이 나라들과 싸웠다.

그 주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제단을 다시 쌓고 성소를 복구하여 전과 같이 만들어 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자기네들과 함께 살고 있던 야곰의 후손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유다는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던 에사오의 자손들을 에돔의 아크라바테네에서 공격하여 큰 타격을 주고 굴복시킨 다음 많은 전리품을 빼앗았다. 그리고 전에 길목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고 잡아 가기도 했던 바아얀 자손들의 악한 짓을 생각하고 유다는 그들을 여러 망대 속으로 몰아넣은 다음 공격하였다. 유다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 버리기로 맹세하고 망대에 불을 질러서 망대 속에 있던 사람을 모두 태워 죽였다. 그는 암몬 사람들에게로 건너가 거기에 강한 군대와 수많은 민중이 집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사령관은 티모테오였다. 유다는 그들과 여러 번 싸워 그들을 쳐부수고 야젤과 그 부락들을 점령한 다음 유다 나라로 돌아 왔다. (마카비 1서 5:1-8)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집트를 정복할 수 있었고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를 침공할 준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는 이집트의 서방이고 나훔 3:9에서도 때때로 이집트를 도운 것으로 언급된다. 에티오피아는 이집트의 남방이고 예레미야 46:9에서 풍요함 (lush)으로 언급된다.

44절은 안티오쿠스가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를 정복하려고 이동했을 때 동방 (바빌론)에서 오고, 북방 (파르티아)에서 온 소식이나 소문이 그를 괴롭혔으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로마 군대가 아마도 그 제국을 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으로 확장하려고 싸우면서, 안티오쿠스가 아프리카 대륙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 같다. 즉시 안티오쿠스는 그의 정복을 완결하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다가오는 로마 군대에 대항하려고 신속히 이동시켰다. 예루살렘 근처에 지중해와 사해 사이의 그의 총사령부를 이루는 집단적인 군막을 세웠다.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인들과 대치하려고 유대에 남겨두었던 그의 군사들의 운명에 대해 듣고, 페르시아에서 종말을 맞았다.

안티오쿠스는 내륙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페르샤의 엘리마이스라는 도시가 금

과 은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 도시의 신전에는 제물이 무척 많았고, 특히 마케도니아 왕 필립보의 아들로서 그리스의 첫째 왕이 되었던 알렉산더가 이 도시에 남겨 놓은 금 투구와 갑옷과 무기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다. 안티오쿠스는 그 도시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재물을 약탈하려 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 도시 사람들이 그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와 맞서 싸워 왕을 쫓아 버렸기 때문이었다. 왕은 비통에 잠겨 그 곳을 떠나 바빌론으로 도망쳐 갔다. 안티오쿠스가 페르샤에 있는 동안, 전령이 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즉, 유다 나라에 진격했던 군대가 패배하였다는 것, 대군을 이끌고 먼저 진격했던 시리아가 유대인 들에게 참패를 당했다는 것, 유대인들은 아군을 무찌르고 빼앗은 무기와 포로와 많은 전리품으로 강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과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제단 위에 세웠던 가증스런 우상을 부수어 버리고 그 대신 그 성전 주위에 전과 같이 높은 성벽을 둘러쌓았으며 왕이 세웠던 도시 벅술에도 높은 성곽을 쌓았다는 것이었다. 안티오쿠스 왕은 이 보고를 듣자 매우 놀라 큰 충격을 받고 속이 상한 끝에 병상에 눕게 되었다.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겹치고 겹친 슬픔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가 마침내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꼈다. (마카비 1서 6:1-9)

이렇게 안티오쿠스는 그의 종말을 맞았고, 본문이 진술하는 대로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었다. 전체로 보아서, 역사는 단 11:36-45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에 대한 요약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